2008년 12월 1일(월)
제152호

사천시보

발 행 처 : 사천시 발 행 인 : 사천시장
(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http://www.sacheon.go.kr 전화 : (055)831-2215 · FAX : (055)831-6011 E-Mail : gongbo@e4000.net 〔1996년 1월 25일 창간〕

2009 기축년 해맞이는 삼천포대교서

시민 번영과 행운기원 다채로운 행사 열어

지난해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에 행복을 기원하는 소망연 날리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아침 일출을 보고 있다.

사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9대 일몰 명소'로서 널리 알려진 '실안 일몰'과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면서'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삼천포대교에서 내년 1월1일 '2009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연다.

사천시는 이번 축제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길'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맞이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또 차량 지체가 많은 동해안 주요 행사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광객들이 사천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해맞이 축제는 전야제 행사로 사천시 벌용동 풍물패 소리누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천문화원 전통예술단의 모듬북 경연이 펼쳐지고 동서동 대방굴항앞 신 방파제에서는 '신년 축포'가 벌여져 새해맞이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감상하게 된다.

이어 음향과 함께 새해 축하메시지가 전해지고, '희망의 북' 타고(打鼓)가 서른세번 있게 되며, '만세 삼창', '소망연 날리기' '다리밟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진행은 예총지부에서 맡아 '의식행사'는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현장 인터뷰 형식으로 '함께하는 마당'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지부장 정영갑)에서는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겨울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체크담요를 제공하고 사천시 소재 BAT 코리아사 업체와 사천시 새마을회는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떡국을 무료로 나눠주는 '소망 떡국 나누어 먹기' 행사와 사천여성 의용소방대와 사천시 대방동 큰고을 굴항회는 따뜻한 차를 제공해 사천시민의 훈훈한 정을 해맞이 관광객에 전해 줄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그간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일출·일몰보다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맛과 멋,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 밝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때 교통정체 등 다소간의 시민불편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손님을 맞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문의 총무과 ☎831-2565

여행정보

사천시는 서울에서 시외버스(서초동 남부터미널)로 4시간, 대전에서는 2시간이 소요된다. 이용도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예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대전~통영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IC→사천읍→삼천포대교

제11회 박재삼 문학제 개최

사천 노산공원서 문학관개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서정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사천시 향토문학의 위상제고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박재삼 문학관이 준공되어 지난 11월 21일 개관과 함께 이틀간 문학제 행사를 가졌다.

고 박재삼 시인께서 남기신 작품의 주 배경이 된 노산공원에 박재삼 문학관이 건립되어 지역문학인과 시민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이날 행사에는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과 전국 문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박재삼 시인의 유가족인 김정립 여사와 자녀 박상하 씨와 함께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개관식과 함께 진행된 제11회 박재삼 문학제가 노산공원과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 열려 박재삼 시 백일장과 청소년문학상, 박재삼 문학세미나, 박제삼시서전, 박재삼 문학의 밤 등 다양한 문학행사가 펼쳐졌다.

시인 박재삼의 아름다운 시를 널리 알리고 정신과 문학의 아름다운 가치를 빛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시 백일장은 노산공원 내 박재삼 문학관 광장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박재삼 문학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수영 사천시장이 문학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청소년 문학상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도 문학적 역량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공모를 통한 예심 통과자 25명과 당일 시 백일장 참가학생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영예의 대상 1명은 경기도 안양예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한주희 학생이 수상해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1백만원을, 가작 2명은 경기도 고양예고 1학년 강병현 학생외 1명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박재삼 시화전이 박재삼문학관 다목적실에서 오후 4시 30분에 강희근 시인의 '한국시 속의 박재삼 시'라는 주제로 박재삼 문학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박재삼 회고의 밤에는 청소년문학상 심사평과 박재삼 시 낭송, 퓨전국악실내악단 믹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박재삼 문학터 탐방과 '시인 박재삼과 그의 시세계'라는 주제로 송수권 시인의 초청 강의와 무용공연을 열어 이틀간의 다채로운 문학제 행사를 마무리했다.

연말 잦은 모임! 지친 건강, 꼭 체크하세요!!

홍혜걸 박사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사천아카데미 34강…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홍 혜 걸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모임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의사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라는 주제로 평생교육 무료교양강좌 사천아카데미(34강)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국내 최초의 의사 출신 전문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KBS 생로병사의 비밀, SBS 잘먹고 잘사는 법, EBS 건강클리닉 등의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책으로 보는 생로병사의 비밀', '건강프리즘', '의사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등의 저서를 통해 온 국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활동하는 홍혜걸 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을 바로잡고, 인간의 평균수명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09년도에 실시될 사천아카데미는 타 시에서 호응이 높았던 강사를 추천받고 있으며,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청하며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삼호조선에서 추진 '순항'

향촌동 모례일원에 들어설 향촌농공단지는 실수요기업인 삼호조선이 26만400㎡의 규모로 조성해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편입구역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보상이 면적대비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로운 상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역내 문화재 시굴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 취소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각하 결정돼 부지조성사업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우리나라 조선업 경기의 활황으로 난립된 중소조선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삼호조선은 향촌농공단지조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부에서 떠도는 우려를 무색하게 순항중이다.

한편 사천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삼호조선이 빠른 시일내 입주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2008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대성황

농업인과 도시민이 한마음 되다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농촌사랑! 생명농업의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열린 '2008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가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펼쳐져 대성황을 이뤘다.

농악풍물패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힘차게 막이 오른 이번 축제는 우리 농축임산물을 생산한 농업인과 이를 애용하는 도시민이 함께 한마당을 펼쳐 한마음이 되었다.

김수영 사천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축제가 수입개방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쌀과 과일류, 소채류, 버섯류, 한우고기, 돼지고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우수 농축임산물을 전시하여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에게는 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축임산물을 시음 및 시식해 방문객의 입맛을 한껏 돋우며 넉넉하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했으며, 사천시의 우수한 농축임산물을 특별 할인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속 쇼핑의 기회를 갖게 했다.

김수영 사천시장과 축제홍보요원인 탤런트 사미자씨가 사천특산물 탑라이스 홍보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보는 축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었다. 천연염색, 대피리 제작, 연 만들기, 농작물 수확체험, 어린이 단감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어린이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축제의 열기가 한층 고조 되는 등 농업인과 도시민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축제시 청사초롱에 우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자의 소망을 담아 전하는 '소망을 담는 축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제'를 통한 시민 일체감 조성과 분위기 고조를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소망등 달기를 홍보하여 2500개의 소망등을 신청받아 소망등 달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기관·작목반·연구회 등 참여기관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준비한 결과로 무엇보다도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 소리꾼 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최우수상 수상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 전수 조교 이윤옥씨

이윤옥씨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 정읍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사천에서 활동하는 소리꾼 이윤옥(39세·여·정동면)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종합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윤옥씨의 이번 수상은 무용과 기악, 가야금 명창, 고법 등 대회 5개 분야의 대상 수상자들이 재경선을 벌여 선정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위해 1년 전부터 학생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소리 연습을 하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창 오비연(중요문형문화재 춘향가 5호)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이윤옥씨는 지난 1971년 축동면에서 출생, 사천여중 2학년 때 국악에 입문해 전통무용을 하다가 사천여자종합고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로 진로를 변경, 고 선동옥(경남도문화재 판소리수궁가 9호)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했다.

이후 2007년 전남도립남도대학 실용음악과에 진학 졸업하고 현재 오비연(국가중요문화재 춘향가5호)선생을 모시고 명창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윤옥씨는 사천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소리꾼으로서 조명군총 위령제 진혼가 공연 등 지역행사 초청 공연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천문화원, 사천노인대학, 하동실버대학, 사천남양초등, 진주교대 부설초등, 사천고등학교, 다물 민족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교사, 학생 등 전수생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하고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제 제9호 사천판소리수궁가 전승 및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수확용 운반손수레 시범사업

1. 목적

○ 농촌의 노동인구가 노령화, 부녀화되는 현실이고 경사진 과수원에서 수확물 운반시 기존 운반기로는 노동부담이 매우 커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로 인해 작고 가벼우며 여성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 노동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신청대상

○ 사업대상 : 사천지역 농업인

★ 2005, 2006, 2007, 2008년 지원대상자 제외

★ 우선순위

- 노령화된 농가, 여성농업인으로서 작업보조구가 필요한 농가
- 각종 학습단체 및 분야별 작목반 활동에 적극 참여농가
- 주변농가에 효과를 적극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수확운반용 손수레 제작 지원

3. 사업추진

○ 사업홍보 및 신청 : 2009년 1월~2009년 2월 15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 문의 : 생활개선담당 ☎ 831-3826

사천시 96억 규모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발족

사천시는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상반기내 67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8. 11월14일 정구창 사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사천시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년에 당장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70%상당을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 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금년(43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된 96억원 규모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66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0억원, 등 총 96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위험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완결위주로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재해위험에 시달려오던 약 750명의 주민과 가옥 80동, 20ha의 농경지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정부예산이 기업과 주민에게 빨리 이전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천포항(구항) 어항구 지정(설정고시)

사천시 무역항이었던 삼천포항 구항 일원이 항만법에 의한 어항구로 지정 되었다. 삼천포항은 예로부터 수협과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이나 무역항으로 지정돼 실질적인 어항기능 및 어업 편의시설과 수산관련시설개선 등이 불가능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어업인, 수협, 지역상공회의소 및 각 단체, 이해 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26일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어항구 지정 신청을 하여 지난 11월 5일. 어항구로 설정 고시됐다.

시는 삼천포항(구항)의 어항구 설정으로 항내 어업관련 지원시설 설치 등 항의 효율적 이용 및 기능과 설정에 맞게 정비 할 계획으로 삼천포수협 활어·선어·패류 위판장 및 회센타 운용, 어시장 현대화 시설(환경개선사업), 주차공간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면세유류 공급시설 개선, 어선계류시설 설치 등 해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관광도시로 면모 일신과 어업인의 이용 편의 및 관광 자원화로 소득 증대에 기여, 인접 시장의 현대화 시설로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 유통으로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어항구 설정고시 주요내용

○ 어항구의 명칭 : 삼천포항 구항 어항구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동 및 동동, 선구동 일원

○ 설 정 구 역

- 육상 : 경남 사천시 서동 311-85번지 외 33필지 (36,418㎡)
- 해상 : 구항의 동방파제 끝단과 서방파제 남단, 서방파제 북측 끝단

에서 육지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24,000㎡)

○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삼천포수협 활어·선어·패류 위판장 및 회센터, 수산물현대화시장, 어항 이용자 주차장확보 및 어업인 편의시설, 면세유류 공급시설, 어선계류시설 설치

○ 이용계획 : 어업 및 수산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천 단감 수출 날개 달다

신선농산물인 사천단감이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사천시는 2008년도 농산물수출을 신선농산물 120만불, 축산물 290만불, 가공농산물 1693만불 등 총 2103만불을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특산물인 단감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선정하고 1100ha에 연간 1만400톤을 생산하여 약 150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수출작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량을 940톤에 110만불로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천 단감의 명성을 외국에서도 인증 받고 있어 올해도 지난 10월 16일 경남무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이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수출 목표량이 무난하게 달성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사천농협과 정동농협, 사천원예조합에서 1200톤을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업체는 경남무역과 (주)모닝팜, 그리고 창락농산 등이며 지난해보다 130% 정도로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산된 단감이 동남아서 선호하는 규격으로 작고 맛이 뛰어나 예년에 비해 수출량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확대로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업체와 바이어 초청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및 수출품목을 개척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천특산물인 단감 수출 작업 광경.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집중 단속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해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단속과 정비를 실시함

□집중단속 및 정비기간

2008. 11. 5 ~12. 30

○경찰 합동 야간 단속 실시

□중점 단속 및 정비대상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 유동 광고물

- 도로변 설치 현수막, 전주·가로등주에 설치된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미고정 광고물

○차량 래핑 광고

- 광고면적이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초과 광고

☞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전화 831-3207)

2009년도 농업인기술개발과제 공모

■목 적

농업인의 영농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및 현장 실용화기술을 농업인 주도하에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신청분야** : 5개 분야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현장실용기술 개발과제

●중앙단위 시험·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과제 당 100백만원 이내, 연구기간은 1~2년

■ **참여자격** :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으로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인단체)

■ **공고기간** : 2008년 11월 17일 ~ 12월 16일(화)까지(30일간)

■ **신청기한** : 2008년 12월 8일한

■ **과제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담당

■ **과제선정 절차** : 1차 평가(도농업기술원) 2차평가(농촌진흥청)

■ **행정사항**

●문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담당

(☎055-831-3820)

●농업인개발과제 신청양식

http://rims.rda.go.kr >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137번 참조

도시가스요금 조정(인상) 안내

한국가스공사의 2008년 11월 ~ 12월중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연료비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로 도시가스 요금이 2008년 1월에 인하된 후 10월까지 계속 동결되어 왔으나 금번 천연가스 연료비 조정으로 부득이 도시가스 요금을 11월 15일부로 조정(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08.11.15. (단위 : 원/㎥)

구 분		공급비용	도매가격	소매가격	소비자가격(VAT포함)
주택용	취 사	128.70	632.55	761.25	837.38
	개별난방	128.70	632.55	761.25	837.38
	중앙난방	128.70	632.55	761.25	837.38
일반용	업무난방	160.75	654.55	815.30	896.83
	영 업 1	177.65	598.92	776.57	854.23
	영 업 2	149.30	598.92	748.22	823.04
냉방용	(05월~09월)	151.49	365.28	516.77	568.45
산업용		112.88	579.63	692.51	761.76
수송용	충전비 포함	112.67	576.63	689.30	758.23
열전용설 비용		129.20	649.46	778.66	856.53
열병합	동절기1,2,3,12	116.04	579.93	695.97	765.57
	하절기 5,6,7,8	116.04	570.80	686.84	755.52
	기타 월4,9,10,11	116.04	573.33	689.37	758.31
평 균		132.94	588.08	721.02	793.12

주택용	도매가격	공급비용	소매가격	소비자가격(VAT포함)	비 고
당초	601.55	128.70	730.25	803.28	인상율 4.25%
조정	632.55	128.70	761.25	837.38	

자동차세 납부 안내

12월은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 기** : 2008. 12. 16 ~ 2008. 12. 31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납부시 시청 세무과 방문납부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별 경감율 = 년세액(지방교육세30%가산)

○ 승합·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원~157,5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별 차등과세 안내**

-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납부세액 : 당해 기분 세액 - 〔기분세액×5%×(차령-2)〕

※ 차령별 경감율(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연식	2006. 1/1~ 6/30	2005. 1/1~ 12/31	2004 1/1~ 12/31	2003 1/1~ 12/31	2002 1/1~ 12/31	2001 1/1~ 12/31	2000 1.1~ 12/31	1999 1.1~ 12/31	1998 1/1~ 12/31	1997 1/1~ 12/31

■**문의처** :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자(☎831~2893) 및 읍·면사무소 자동차세담당자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8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으로는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남의광장 설문조사 결과보고 외 6건과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제갑생의원의 5분 자유발언, 최갑현·이정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

읍지역 학생들 통학로 확보, 도시계획도로 확보 요구

【제갑생 의원/제 129회 임시회】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사천읍이 읍으로 승격한지도 벌써 5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읍으로 승격한지 50여년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읍의 도로 사정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읍내권이라면 최소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도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간 읍 지역에도 수십 곳의 도로를 내고 있으나 각종 학교들이 위치한 곳에는 인도가 전무하여 등·하교 시에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학교 주변 도로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특히 사천중학교 주변은 사천여자중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느 곳보다 등하교시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 도로난 해소와 등하교길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중앙병원 옆 대로변과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중학교 쪽 시내 도로변의 인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사천청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수석1리 무상골은 명색이 시청이 있던 곳인데도 그곳 마을 위쪽 약 10여 가구는 차량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곳으로 화장실 청소도 인력으로 밖에 할 수 없고, 이사 등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는 손수레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읍내 한가운데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평화동 서포횟집 뒤편 김모씨 집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노폭이 좁아 소방차가 현장 접근조차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제대로 된 화재진압도 못한 채 그 가옥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천읍의 도시계획도로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서면으로 질의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사천시의 답변에 따르면 소로 1-2호선 중 사천읍 주차장에서부터 딸애식당 구간은 2009년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딸애식당에서부터 서포횟집 구간은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착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 본의원이 2006년에 주차장 쪽에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서포횟집 쪽에서 주차장으로 개설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옆은 대로가 2개나 있기 때문에 골목 안보다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제언대로 공사를 했다면 그 구간 골목은 벌써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화재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읍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하루 빨리 적절한 도로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 내용

향촌농공단지 사업 진척, 벌리지역 도로개설 공사 확보계획 질의

【최갑현 의원/제 129회 임시회】

2008년도도 2개월 후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부서별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이 많은 시책을 보고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의원들에게 하였지만 평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한 해당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조선(주)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 중인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기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 외에 산업단지 9개소 농공단지 3개소를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지역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낙후된 동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의 기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삼호조선(주) 입주예정인 향촌 농공단지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난 2006년 4월 6일 투자협약(MOU)체결 후 2009년 12월을 완공기점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시로 사업 진척도를 보고하여 진행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제한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관계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4월 6일 투자협약 체결 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삼호조선(주)이 조성 중인 향촌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 진도, 공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정상 가동시 예상 고용인원수, 정확한 생산품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벌리 주공APT로부터 향촌 신호등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중 동부지역 개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말을 준공 예정으로 하는 삼호조선(주) 입주 예정인 향촌 농공단지의 거점 도로로 활용 할 수 있으며, 2011년을 사업기간으로 개발 중인 삼천포 신항의 배후 도로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규모 및 2008년도까지의 확보 예산액과 당초 계획된 사업 종료기간, 소요 예산액의 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삼호조선(주)의 정상 가동과 삼천포 신항의 사업 종료 후에는 물류 운송 및 차량 소통 증가로 인하여 위 도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정상 개설치 못 할 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벌리동 소재 북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예상 사업비 29억 7천만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을 사업기간으로 현재 시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시내에서 진주쪽으로 우측 구간만 보도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동지역 시내 구간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기 개설된 도로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 할 것입니다. 타 사업에 비하여 사업 예상기간이 8년이나 걸리는 당 사업이 사업 목표기간인 2010년까지 종결 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와룡마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와룡마을은 1982년 1월 15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와룡마을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건의에 의하여 2006년 9월 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07년 7월 위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근래에 들어 와룡마을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와룡지구 개발사업과 맞추어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르는 확실한 결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과와 향후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면부족으로 답변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시정 질문 내용

각종 축제 통폐합 방안, 관광·레저·스포츠 사업 활성화방안 질의

【이정희 의원/제 129회 임시회】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천시의 각종 축제의 개편 및 그 발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양·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사천시의 각종축제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축제를 수 없이 치루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0월에 개최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문화관광축제만 3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5년 350개 수준이던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는 민선 4기에 이르면서 올해 926개로 급증했습니다.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축제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3,000개가 훌쩍 넘는 축제가 한해에 진행되고 있어 대충 계산해 봐도 날마다 10개씩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성공적인 축제는 많은 관광수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전통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지역의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지역주민의 참여부족, 기획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일과성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사천의 축제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사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는 100여개에 이르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시비로만 30억 원 정도가 지출되며 그 외의 국도비와 자비 부담금을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문화행사와 축제들을 치르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며 행사를 치르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보니 주민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경제적 효과는 반감됩니다. 몇몇 행사는 인원동원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천시의 기획력이나 문화예술적인 자산으로 쌓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10년 후 정도는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축제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인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정신의 복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지금의 행사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시민들의 열정을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사천의 축제와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사천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사천만의 특색을 살리는 큰 방향으로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 먼저 사천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엑스포와 세계타악축제를 중심으로 크게 이원화해서 전국적 명성을 쌓아갈 수 있는 축제로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개의 축제 속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연계되는 소규모 축제는 동시에 개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만들어내면, 일회적이고 반복적인 이벤트성 행사를 격조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규모의 축제들 중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복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는 취사선택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새장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 첫 번째의 그림이 가능하도록 사천시의 전체 축제를 기획하는 축제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축제들을 이원화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각종 축제들을 추진해 왔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차츰 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실행위원회(가칭)가 축제 평가 작업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배치와 내실 있는 연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자체 기획력을 획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일이 많은 사천시의 공무원들이 각종 축제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사천축제의 기본방향을 새로이 세워감에 있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축제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규모의 축제라도 꼭 살려야 하는 특색 있는 축제는 살려야 하겠지만 원칙 없이 축제를 난립시킨다면 예산의 낭비와 함께 축제의 경쟁력도 잃고 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 작업과 아울러 축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위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남양·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양·광포만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천혜의 장소입니다.

여객선과 화물선 운행이 드물어 간섭물이 적고 계절풍이 시기마다 다르게 불어 윈드서핑이나 요트 등 해양 레저를 즐기기엔 전국에서도 이만한 자연환경을 찾기가 어려우며 세계적인 경기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으며, 비록 마지막 순간에 수영만으로 결정되었지만 초반에는 88올림픽 요트경기장으로 지정된바 있는 것도 남양·광포만이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10월 11일자 신문기사에는 '경남이 해양 레저의 꽃인 요트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요트학교를 5개 시·군에 설립키로 하고 마산시를 우선 설립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중략-

경남지역 곳곳에 요트학교가 설립·운영될 경우 항만 배후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한 각종 해양 레저스포츠의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최근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시설확보 및 교육·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해 요트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마산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설립 우선 순위 등을 결정했다."

경남도에 요트학교를 신청한 모든 시 군이 요트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천시의 경우 경남도에서 도비지원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상황도 있었으나 막상 시의 담당부서가 없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에도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해양수산과 어디에도 담당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양레저관광스포츠산업'이어서 이름 그대로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라 어떤 부서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와는 달리 인근 시·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사에 보도된 대로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정된 5개 시·군은 모두 담당부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대회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천시가 지극히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성을 담보하기도 힘든(현재 공사중지) 서포골프장 등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 정도로 과도한 의욕을 보였고, 역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대규모 매립 후 조선소를 유치하는 사업을 위해 무모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모습 등등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천의 동지역(구 삼천포 지역)은 적절한 개발사업의 부재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급급한 현실이 있습니다.

사천시의 많은 개발사업이 읍면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사업들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동지역주민에게 피해의식으로 다가오며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국에서는 사천 어디라도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할 것임에도 차려진 밥상조차 먹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시가 표방하는 사천의 이미지는 여전히 항공우주도시이고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해양관광도시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남양·광포만에 있는 요트장은 천혜의 입지조건과 온 가족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주차장도 변변치 않아 오는 손님을 제대로 맞을 수 없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은 실안관광지사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이 사업은 지금도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제라도 실안관광지와 남양·광포만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려 죽어가는 동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면부족으로 답변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시정뉴스 서경방송 채널6번에서 방영됩니다

사천시정의 생생한 뉴스를 (주)서경방송 채널6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금·일요일 오전7시15분, 9시15분, 오후2시15분, 저녁7시5분에 주3일, 1일 4회 방영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복지알림방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세대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소외된 이웃의 복지수요 부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다.

사천시자원봉사회 150여명이 참여해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추김치 3300포기로 김장을 담가 관내 어려운 450세대에 나눠주어 사랑을 나눌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개최

사천시와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김수영 사천시장 및 내외귀빈과 다문화가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천시가 후원 하며 낯선 생활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 하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마련됐다.

축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장기자랑과 명랑운동회, 대동놀이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다문화과정의 협동심과 가족애를 기르고, 자원봉사자 및 일반 시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이웃이고, 사천시민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사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230여 세대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의 1대1결연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는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비롯한 한글교실과 문화체험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천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순자)는 지난 11월 26일 오전10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수영 사천시장과 김현철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과 올해 우수 자원봉사자 16명에 대해 표창수여와 자원봉사활동 영상물 상영에 이어 국제대학교 염동문 교수를 초청하여 자원봉사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특강하고 현장체험과 문화활동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2008년 한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격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관심 집중

사천시와 (재)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에게 희망과 자활의욕을 심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구)삼천포청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프로그램으로 대구 씨앤우방랜드에서 청소년이 함께하고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을 가졌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거나 학교 부적응,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동서금동보건센터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족 만들기' 1388 아웃리치를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웃리치란 학교와 가정 폭력, 가출, 성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1388 아웃리치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가족 내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켜 위기 청소년에서 탈출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알림방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육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되세요!!

사천시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3층 다목적실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질환의 원인 및 관리의 중요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영양 및 식이교육 등을 4주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 교육대상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및 가족
○ 교육일시 : 2008. 12. 2 ~ 12. 23 매주 화요일 10:00 ~ 12:00
○ 교육장소 : 사천시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교육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 건강체조, 웃음치료, 영양관리 및 식이교육 등
-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실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만 해당)
- 교육 참여자 홍보물품 지급
○ 교육신청 : 사천시 보건소 만성병관리담당 ☎ 831-3568

금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니코프리 사천' 만든다

사천시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시민의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활용한 금연광고(사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보건소는 흡연시민 1138명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시도했으며 이들 중 4주 금연성공률이 84.2%, 6개월 금연성공률이 42.4%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간 내기가 힘들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기업체의 금연지원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SPP해양조선(주),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두원중공업, 미래조선해양(주) 등 사업장 이동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 환경조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외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금연환경조성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내년에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통해 'Clean 아파트'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아파트 공용구역인 놀이터와 계단, 복도 등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Clean 아파트'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Say No school'도 확대 운영하고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등 직장과 시민들에게 금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사천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생애 주기 중 중년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본검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건강위험평가와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처방까지를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진단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받으세요!

○ 검진대상 : 만40세(1968년생), 만66세(1942년생)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 검진내용
○ 건강검진
- 1차 : 32개 항목(B형간염, 고지혈증, 신장기증, 골다공증, 노인신체기증검사, 치면세균막검사)
- 2차 : 결과상담 및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 선별검사
○ 암 검진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검진기관
- 읍면지역 : 성모병원, 중앙병원, 삼성요양병원, 박내과의원, 사천제일의원
- 동 지 역 : 한마음병원, 김내과의원, 메리놀내과의원, 삼천포내과의원, 정현내과의원, 삼천포제일병원, 삼천포서울병원
○ 준비사항 : 검진 날 아침을 금식 한 후 생애전환기 검진표를 지참하여 해당병원 내원
※ 기타 문의 : 보건소 만성병관리담당 831-3553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반 수강생 모집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천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08. 12. 29. ~ 2009. 1. 23.(4주)
주3회(월,수,금) 10:00 ~ 12:00
【단, 제과제빵체험교실 주1회 2개반 운영, (화?목)10:00~13:00】

◈ **신청기간** : 2008. 12. 15. ~ 12. 19. (선착순)

◈ **모집과목 및 인원**

과 목 명	모집 인원	대상 학년	교 육 내 용	비 고
제과제빵 체험교실	40명	전학년	센드위치만들기, 동물모양빵만들기, 슈크림만들기, 상상의케이크만들기	2개반운영 재료비:40,000원
영어교실	20명	3~6학년	생활회화를 통한 상황극, 영어퀴즈,이솝우화, 팝송	교재비:10,000원
독서논술 교실	20명	4~6학년	생각을키우는 글쓰기여행	교재비:10,000원
서예교실	20명	전학년	한글서예, 한문사자성어, 생활한자	준비물 : 붓,먹, 서진, 화선지, 한자공책(8칸)
키크기 체조	40명	전학년	스트레칭, 유산소운동,요가	운동복차림
바둑교실	20명	전학년	바둑기초과정	교재비:7000원

◈ **접수장소**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전화접수 가능)
◈ **수 강 료** : 10,000원(재료비,교재비 등 본인 별도부담)
◈ **납부계좌번호** : 농협(839-01-036518, 종합사회복지관)
【부모 계좌 입금시 전화바랍니다】

◈ **기타사항**
○과목별 접수 마감 후 수강 적정 인원(2/3이상) 미달시는 운영이 취소됨
○사천시 인터넷(www.sacheon.go.kr)에서 볼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831-2480~3)으로 문의바람.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사전 예방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일제조사코자 함.

■ **허위전입 조사기간**
○ 조사기간 : '08. 11. 24(월) ~ '09. 1. 6(화)
○ 추진기관 : 전 읍·면·동(출장소)
○ 중점정리내용
-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세대
- 동일번지 내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허위전입조사 추진일정**
○ 08. 11. 24 ~ 12. 12 : 홍보 및 사실조사 (통(리)반장 및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 08. 12.. 15 ~ 12.. 31 : 최고 및 공고
○ 09. 1. 2 ~ 1. 6 : 직권조치 및 정리

■ **주민등록사항관련**
○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여야 하며,
○ 만약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며, 재등록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주민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천시 민원지적과(055-831-2813)

2008년 추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실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1. 사업개요
□사 업 량 : 81척(연안어업허가 어선)
※ 경남도 전체물량(420척)중 우리시 배정19%
□사 업 비 : 5,089,633천원(국비80%, 도비10%, 시비10%)
□대상어선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 총사업비의 50%(41척)
○연안복합, 연안들망, 연안안강망어업 허가어선 : 총사업비의 50%(40척)

2. 사업추진 절차
○어업인 설명회 개최→입찰공고→입찰참가신청 및 등록→입찰(낙찰자 및30% 범위내 예비후보자 선정)→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최종사업자선정→계약체결→기관,장비등매각→폐업어선처리→어선등록말소 및허가폐지→지원금지급
○추진사항
- 입찰공고 및 세부안내 공문발송 : 면, 동, 유관기관, 어촌계
- 입찰신청(등록)기간및장소 :2008. 12말경 ~ 2009. 1월중(해양수산과)
- 입찰일시 및 장소 :2009. 2월경(사천시청 대회의실)
○입찰 참가신청 자격
- 어선감척사업"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우리시 어업허가어선 중·연안선망,연안통발,연안자망,연안복합,연안들망,연안안강망·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출입항신고실적, 수협위판실적, 면세유구입실적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증명실적으로 인정 함)
○입찰참가 서류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선박검사대상 어선에 한 함), 선적증서 사본 각 1부
○어선원부 1부
○어업허가폐지동의서(사업대상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허가에 한 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현 상태의 선체광경 사진(4장 : 전·후·좌·우 각 1장)
○입찰대상어선이공고일기준최근1년간또는'07.1.1 ~ 07.12.31까지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항신고서, 수협 위판 증명원, 면세 유구입실적 중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만제출)

2009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희망 학생 모집 공고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 희망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08. 11. 24. 09:00~12. 12. 18:00(19일간, 토, 일요일 제외)
2. 선발인원 : 5명
3. 참가자격 : 2008. 11. 1.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부·모)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15세이상 18세이하(1991. 3. 15. ~ 1993. 7. 20. 참가 연령 기준은 추진과정 중 미국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학생으로서
○중 학 생 : 평균 성적(최근 3년간) ?우?이상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 군(과목) 성적 각 3등급 이상인 학생 본인의 확고한 학습의지와 미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공통
- SLEP 테스트 합격자(67점 만점에 45점 이상, 최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및 인터뷰 통과 학생
-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학생
4. 참가조건
○미국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학생은 향후 고등학교 진학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야 함.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포기(귀국 등) 시 사업비 반납(학부모 이행각서 작성)
○학부모와 학생은 미국 공립학교 및 홈스테이 배정, 현지 학교 교과 과정 등 교환학생 진행과 관련된 모든 추진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음.
5. 참가 희망 학생 선발
○선발인원
- 1차 선발 : 희망자 전원(SLEP 테스트 탈락자를 감안하여 전원 선발)
- 2차(최종) 선발 : 5명(SLEP 테스트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선발 방법 : 평가 기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선발
6. 접수 및 발표
○접 수 처 : 사천시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831-2581)
○접수방법 : 학교통한 일괄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발 표 : SLEP 시험 성적 발표 후(2009. 1월 예정)
7.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지참물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및 이행 각서 각 1부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학부모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사천읍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나눔

불자모임인 자비회(문미혜외 5명)는 사천읍시장 신바람축에 참가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식사가 어려운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30여 가구에 20kg(4만2000원 상당)들이 쌀 30가마를 전달했다. 자비회는 올해로 2년째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난으로 따스한 손길이 더욱 간절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 나누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천읍새마을부녀회(회장 안미화)는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함께 제공했다.

사천읍자원봉사협의회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

사천읍자원봉사협의회(회장 임두악)는 매년 관내 홀로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 19일(수) 20여 명과 함께 순천갈대밭, 내장산, 담양, 남원광한루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정동면 정동 고읍마을 단감따기 체험 행사 개최

지난 10월 31일 정동면 고읍마을에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감따기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체험행사는 농산물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정동 단감을 널리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관광객들은 단감따기와 단감떡 먹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5kg 1박스를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구입을 원할 경우 10kg단위로 현장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사남면 '사남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열어

지난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된 ?2008 사남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는 14개 단체 3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를 비롯한 면 전체에서 실시됐다.

매년 실시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올해에는 보다 일찌고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사남면 자연보호 협의회(회장 윤유덕)가 주관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피서철 많은 사람이 이용한 유원지 위주로 정화활동을 실시해 약 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사천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참여자 들에게 떡국을 마련해 대접했으며, 철저한 분리수거와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십자봉사회에서 1위를 차지해 시상금 1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의용소방대에서 상위 입상해 시상금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농번기 후 관내 14개 단체 조직원 회원들이 참석해 본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 자연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용현면 용현면 시민안전봉사대의 온정나누기

용현면시민안전봉사대원(회장 조용천)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와 어려운 경기 침체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 및 독거노인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주말을 시작으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수도와 보일러, 가스등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이날 지원해준 신촌리 종포마을 윤영차세대의 장애노인들은 봉사대원들의 고마움에 기쁨의 눈물과 자식보다 더 아름다운 정감을 느꼈다며 고마워했다.

용현초등학교 교육성과 발표회

용현초등학교(교장 문성균)에서는 지난 11월 13일 기관단체장 및 학부모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춤과 연극, 노래, 악기연주, 영어말하기 등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운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발표회를 가졌다.

용현초등학교는 초등교과과정외 인성 및 특기교육을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 어린학생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꿈을 심어주어 도시지역의 학교와 다름없는 교육으로 학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사고 있다.

축동면 "가을햇살 담긴 축동단감 애용해 주세요"

축동면(면장 송군호)은 지난 11월 5일 직원 10명을 동원해 축동면 탑리 일원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단감수확을 도왔다.

과일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그마한 도움을 줌으로써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단감 재배농가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도가 높고 맛좋은 단감이 생산된 만큼 축동단감을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곤양면 곤양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곤양면(면장 한재천)은 겨울철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나누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1일부터 관내 11구역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겨울철 산불예방에 돌입했으며, 13일에는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기·가스등 사전 안전점검으로 인재에 의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곤양면시민안전봉사대(대장 정남진)를 발족했다.

그리고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곤양면 자생조직단체들도 사랑의 연탄 배달사업, 김치 담그기, 성금 모금 등 자체적 행사를 통한 나눔의 장을 실천 중이어서 올 겨울 곤양면 사랑온도는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곤양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개최

지난 11월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곤양면 자연보호기념비 앞에서 자연보호곤양면협의회(회장 김영구)가 주관한 '곤양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진삼성 시의원, 곤양초등학교 어린이봉사대, 곤양면 자생단체 조직원,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양IC 및 곤양종합시장 주변일대를 깨끗이 정비해 3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곤명면 제8회 곤명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난 11월 12일(수) 추천리 추동마을회관 앞에서 자연보호곤명면협의회(회장 이재경) 주최로 '제8회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개최해 11개 자생단체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동마을회관에서 다솔사입구까지 생활쓰레기 140kg을 수거했다.

이날 행사는 생활 주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수거를 통해 고장 사랑을 실천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자생단체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있는 자리가 됐다.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 및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지난 11월 6일(목) 곤명면은 민간안전지킴이로서 우리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곤명면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서남숙) 발대식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곤명면사무소에서 봉사대원 위촉장 수여 등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한 후 오후 2시부터 완사시장에서 곤명면 시민안전봉사대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약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의 안전 의식 촉진을 위한 생활안전 교육?홍보 및 재난 취약 계층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포면 제7대 서포사랑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

지난 11월 1일(토) 오후 5시 서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제7대 서포사랑청년회 장단(회장 백승국) 및 제3대 자문위원장(위원장 배종주)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 내·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그 동안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제6대 회장단의 전역식을 위로했고, 신임 회장단에는 박수로 격려했으며 앞으로 서포면이 많은 발전을 이루도록 희생과 봉사로써 힘써 주기를 바라며, 공식적인 행사를 마쳤다.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지난 11월 2일(일) 12시 서포면과 대구시 진천동의 양 도시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화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년 이상 진천동 직원 및 서포면 사무소 직원과 자율 방범대 등이 교류해왔던 자생단체 간 교류의 일환으로 진천동(회장 손석기)과 서포면(회장 문금천)의 40여 명의 양측 회원들 서포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토에서 앞으로 도시간의 특성과 정보 교환, 인적 물적 교류를 약속 했으며,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간의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동서동 삼천포유람선협회 경로 효도관광 실시

삼천포유람선협회(협회장 이삼수)는 지난 10월17일(금) 오전 10시부터 사천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초청해 유람선 선상 효도 관광 행사를 가졌다

이날 노인 효도관광 행사는 한려수도호 유람선관광과 기념품 등을 전달해 자칫 외롭고 소외감에 빠지기 쉬운 노인들에게 진심어린 위안과 격려를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동서동 조직단체원 단합 행사 열어

동서동 11개 조직단체는 지난 11월 6일(목) 의령군 벽계야영지에서 조직단체회원간 친목과 화합단결을 위한 단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단합행사는 조직단체간 공치기,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실시해 조직단체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동서동 자생단체회원간 인사와 결속력을 강화했고 동서동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서 살기 좋고 신명나는 조직단체로 나아갈 방향과 비젼을 제시했다

선구동 '선구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개최

선구동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상수)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2008년 선구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선구동 자연보호협의회원을 비롯한 자생단체 조직원, 대성·삼천포초등학교 어린이봉사대,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각산 봉화대 주변과 등산로 일대를 깨끗이 정비해 2톤 가량의 쓰레기 수거와 함께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이 날 각산을 찾은 시민들은 깨끗하게 정비된 등산로를 보고 평상시도 자주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고마움을 표현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보호헌장의 정신을 고취함은 물론 조직단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평가됐다.

선구동 통장협·자생단체 조직원 단합대회 개최

선구동 주민센터(동장 김길수)는 지난 11월 8일 선구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조직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송군 주왕산 가을단풍, 주산지 등을 견학했다.

이번 단합행사는 조직원 서로가 보다 가까운 정을 나눌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겸한 가을야유회로 자생단체간의 상호유대 및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또한, 선구동 제일 가수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 자생단체별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선의의 경쟁 유발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버려 활기가 넘치는 자리가 됐다.

동서금동 동주민센터에 이름모를 독지가 쌀 기탁

지난 11월 3일(월) 동서금동 주민센터에 쌀 20Kg짜리 10포대가 이름모를 독지가에 의해 전달됐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는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과 이웃에게 조그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동주민센터에 지인을 통해 쌀을 기탁했다. 또한 이 독지가는 경로당이나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쳐 실제로 주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는 요즘 이름모를 독지가로 인해 우리 주변은 따뜻하다며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벌용동 벌용동 관내 전 조직단체 단합대회

지난 11월 15일 벌용동(동장 강호천)은 제12회 사천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한 전 조직단체 및 참가선수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벌용동 전 조직단체 단합대회'를 가졌다.

벌용동체육회(회장 이민관)가 주관하고 벌용동의 전 조직단체가 후원한 이 날 행사는 벌용동 통합이후 처음으로 전 조직단체가 참가한 것으로 지리산 노고단을 등반하고 하동일원을 탐방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민관 체육회장은 "벌용동민들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렇게 화합된 마음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벌용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벌용동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참여 및 관심을 당부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11개 단체 참여

지난 11월 11일 14시 와룡마을에서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가꾸기 분위기조성을 위한 '벌용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자연보호벌용동협의회(회장 황일명)가 주관하고 11개 조직단체 15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와룡천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비료 20포대를 준비해 도로변 70여 그루 단풍나무에 시비작업을 했다. 벌용동은 이 날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지속적인 행정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향촌동 향촌동 조직원 단합행사 시행

향촌동 조직원은 90여 명은 지난 11월 12일 당일 일정으로 구미·합천일원(금오산,영상테마파크) 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체육회·통장협의회·새마을협의회 후원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동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운 조직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자리로서 매년 실시되어지고 있다.

당일 행사로 아쉬움은 남았지만 2008년 가을의 끝자락에 조직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향촌동 발전의 지킴이로서 서로가 힘이 되어 줄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며 단합행사를 마쳤다.

남 몰래 이웃사랑 실천

향촌동주민학습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우리마트)씨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이웃사랑을 남몰래 실천해 오고 있다.

매년 작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으며, 올해도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백미 10kg(10포)를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증했다.

금번 위문품은 향촌동에서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1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양동 어려운 세대 전기 안전 점검 시행

남양동시민안전봉사대(대장 정진균)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복지 및 재난예방 효과를 거두었다.

봉사대는 대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전기업체인 (자)삼성전기의 협조를 얻어 대포동 거주 이희동씨외 4가구에 대해 노후된 전기시설을 진단해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교체 등 전기수리를 실시해 동절기에 적절한 봉사활동이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남양동시민안전봉사대는 농기계안전반사표지판 설치, 등산객 안전문화 캠페인 등 우리지역의 안전과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봄을 기다리며 도로변 유채 파종

남양동(동장 안기동)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사천대교를 연결하는 미룡해안도로변 공한지(국유지)에 유채, 코스모스, 메밀 등 계절별 특색있는 꽃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동자연보호협의회, 동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에서 참여하여 내년 봄 내음을 상상하며 유채를 파종했다. 이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남양동위원회에서는 국도3호선 구미마을 입구 도로변에 쓰레기, 잡초로 방치되어 있던 화단 100여m를 복토해 잔디식재와 꽃나무 보식으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 설명회’ 개최

시 인재육성장학시책 홍보로 학생 및 학부형들의 큰 호응 얻어

지역인재육성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와 사천시 중등학교장 공동 주관으로 지난 11월 4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관내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사천체육관과 용남고등학교 강당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본 행사는 지역인재들의 외지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무엇이 유리하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입시지도 경험이 풍부한 관내 현지 고등학교 교사를 강사로 지정하여 우리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시에서는 지역교육부문 투자 상황 및 시 인재육성시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성적에 따라 최고 5백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고 원어민 교사제 운영, 종로학원 E-Class 수강지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개최된 ‘내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 설명회’는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참가 지원, 항공과학 영재교실 운영 지원, 국내 명문대학 투어 실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등 각종 교육부문에만도 지난해 총 38억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 및 교사들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시책 및 교육부문의 투자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굳이 외지로 보내지 않아도 우리지역에 진학시킬 경우 내신성적 획득은 물론 학부형들의 학비부담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현격히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역할과 시책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시청 간부 공무원 장학금 기탁 솔선참여

또한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 8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재단업무가 시행되면서,

사천시에서는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국·과장,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해 오고 있고 출향인사 및 각급단체 협의회 등으로부터도 기탁금이 답지되는 등 앞으로 본 재단이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향우회, 동창회 등 단체 모임시에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뜻있는 기탁이 이루어지기를 향우회, 관내 기업체, 각급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사천강 주변 시민휴식·여가공간으로 탈바꿈

사천시의 유일한 지방2급 하천인 사천강 주변이 시민휴식 여가공간과 친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사천강을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면서 제방과 주변부지를 활용하여 지압보도설치와 가로수식재, 그리고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

특히 사천강 제방을 이용한 사천교에서 예수교, 정동면 수정리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연차적으로 5km를 조성했으며, 금번 예수교에서 죽담교 2km 구간에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사천강 양방향을 연결하는 총 7km의 산책로를 완료했다.

사천강주변 시민 휴식공간은 사천일반산업단지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사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천해 감에 따라 주거지역과 연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해 시민의 여가공간과 조깅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제방에 코스모스 식재 등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중보를 설치해 물고기 등 수생동물 생육에 기여함은 물론

사천강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 전경.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사천강 산책로 주변에 주차장과 쉼터 2개소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아침 저녁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천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체육 휴식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대별로 보는 ‘사천의 회화’ 전시

14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서 첫 번째 열어

경남도립미술관이 기획한 ‘경남미술사 정립전’ 의 첫 행사로 사천의 회화를 마련해 미술관내 다목적 홀에서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열고 있다.

경남미술사 정립전은 경남미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본적인 사료의 수집과 연구를 바탕으로 20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연중 추진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천지역 작가들의 한국화 6점, 서양화 18점, 드로잉 1점 등 총 25점의 회화작품들이 유형별, 시대별로 구분해 배치했으며, 사천미술 연보, 사료들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동으로 불리며 고종(高宗)황제의 어전(御前)에서 궁정화원 생활을 하면서 영광을 누린 매산(梅汕) 황영두(黃永斗, 1881~1957) 선생의 매화(梅花)작품, 사천과 삼천포지역에서 최초로 회화전을 열었던 문계수(文桂洙, 1921~), 한국미술협회 사천지부의 전신이었던 토우회(土友會)의 강사랑, 김창문, 김수연 등 사천지역을 선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유형별 시대별로 구분돼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매산 황영두 작품인 ‘매화 10곡 병풍’

오늘날 사천미술은 2002년 개관된 사천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6명의 미협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삼천포 노산공원에서 설치와 행위예술 등이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사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사천시는 청소년들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가진 긴장감을 해소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2008년 사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지난 11월 26일 오후 5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대입 수능을 마치고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서경방송과 사천시청소년지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소년들만이 누리는 한마당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해 2시간동안 트리플 S를 비롯한 인기 댄스 그룹팀의 초청공연과 관내 고등학교에서 끼와 솜씨를 맘껏 뽐낼 9개 팀이 출연하여 가요와 댄스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청소년들이 대입 수능시험과 평소 학업으로 쌓인 긴장감을 풀고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문화적인 갈증해소에 적극 기여했을 것으로 밝혔다.

평생학습의 장 ‘삼한노인대학 축제’ 개최

사천시 삼한노인대학(학장 이만수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 선구동 소재 노인대학에서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노인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제5회 삼한노인대학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 참석한 김수영 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축제를 평생학습의 기회로 삼아 급속한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나가는데 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한마당잔치는 삼천포초등학교 관악부 초청공연에 이어 학과 발표회, 마술초청 공연과 사천시무용협회 창작공연 및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삼한노인대학은 1년 수료과정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반, 문예반, 음악반 등 12과목 26개반으로 운영된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 향우동정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홍보 표찰 달고 입상

부산마라톤대회서 다대마 오선화 선수 10km부문 5위

지난 11월 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과 낙동강변의 부산육상연맹공인 마라톤코스에서 개최된 국제신문 주최 제10회 부산마라톤대회에서 우리고향을 홍보하는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홍보 표찰을 달고 뛴 오선화 선수가 여자 10k코스 5위에 입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여자 10km코스에 출전한 부산다대마라톤동호회(회장 조용진, 삼고 24회) 소속의 오선화 선수는 출발할 때부터 좋은 컨디션으로 앞서 달려 최종 5위로 골인 입상하여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 선수는 우리 고향출신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사천삼천포의 자연경관이 좋아 함께 동참하는 회원이다.

이날 대회에는 ‘43가보자’ 등 표찰을 달고 홍보하며 달린 선수들은 다대마라톤동호회, 달달이 마라톤 팀과 동문 향우선수들 모두 30여명이 출전했다.

재부 실안향우회 제13차 정기총회

재부산 실안향우회(회장 박종규)는 지난 11월 1일(토) 저녁 6시 부산시 사상구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앞 르네상스호텔 뒤 전원뷔페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년에 13년째로 개최한 이날 향우회 총회는 평소 만나지 못한 고향 선후배 가족들이 함께 하여 소주잔을 기울며 고향의 변하는 소식이랑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저녁을 보냈다.

재부 삼천포고 총동문회 총회 및 체육행사

신임 회장에 최영남 동문 취임

재부산 삼천포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동래중학교 교정에서 금년도 주관기수인 23회 동기회(회장 김윤곤, 총무 이홍기) 주관으로 제8차 정기총회 및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식에는 모교 삼천포고 총동창회에서 정기현 총동창회장과 문정호 부회장, 김태규 부회장, 사무국장 및 차장들이 참석했고, 원정부 명예회장, 4회와 5회 졸업생 70명의 대선배 동문들과 많은 선후배들이 참석했다.

이어 제5대 신임회장으로 최영남(22회, 현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동문을 선임해 취임했다.

오후 체육대회에서는 홀짝기수별로 나누어 한 팀이 18명씩 구성된 축구팀을 구성해 축구와 5명으로 구성해 족구시합을 했으며, 천봉근 창립회장, 정창식 회장, 최영남 신임회장 모두가 축구시합에 출전하여 젊은 선수들 속에서 실수하는 장면으로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천시,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 달라지고 있다

사천시는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바꿔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반 구축시 정류소 안내기 8개소 설치에 이어 83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 용현면사무소 앞 정류소 등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시내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과 시정 및 공공정보의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GPS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와 정류소간 버스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류소안내기를 통해 해당 노선버스의 도착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운수업체 차량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버스운행 실시간 파악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정보의 홍보매개체로 활용이 높아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사망사고 확! 줄여 보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천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귀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시도 1호선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 1호선 23㎞ 전 구간에 대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발생 우려지역 12개소를 선정해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노견정비, 차선 규제 블럭, 차선도색 등 13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시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그동안 꾸준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으로 연차별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85명(‘05년 34명, 06년 27명, ‘07년 24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확! 줄여 보자.’를 올해의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월 현재 교통사망사고는 1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명이 줄어들었다.

시는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내 초등학생,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중점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교통 사망사고를 확 줄이기 위해 기존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희망온도 1도 낮추면 희망경제 올라간다!

◆ 실내온도 18~20℃ 유지

· 지나친 난방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 겨울철 난방온도는 18℃ ~ 20℃면 충분합니다.

- 실내온도를 1℃ 높이는데 에너지는 7%가 더 소비됩니다.

· 선진국에서도 겨울철 난방온도 기준을 20℃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 내복입기 생활화

·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 3℃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및 보조난방기기 관리

· ‘고효율에너지절약기자재’를 확인하여 고효율 제품 구입

◆ 보일러 에너지절약 방법

· 보일러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10%의 연료비 절감

· 기름보일러는 빨간색 보일러등유, 실내 보조난방기기는 백색 실내등유 사용

· 보일러의 가동방법과 계절에 따른 온도조절 방법을 숙지하여 사용

· 1년에 한번 보일러와 배관속에 흐르는 물 교체

◆ 보조난방기기의 효율적 이용

· 난방면적이 좁고(3평이하) 밀폐된 곳 :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 난방면적이 넓고 통풍이 잘되는 곳 : 석유 및 가스난방기

· 통풍이 안 되는 곳 : 전기용품 및 가스팬히터

선진국의 실내온도 권장 수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18.3℃이하	19℃이하	19℃이하	20℃이하

〈우주항공소년 또롱이의 항공 이야기-60〉

하늘위의 만찬 : 기내식

(flight ration)

기내식(flight ration)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즉 항공 회사의 서비스로서 무료로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가리키지만 기장, 부기장, 객실 승무원 등이 항공기 내에서 섭취하는 식사도 기내식이다. 하지만 도시락 등 승객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한 음식은 기내식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즉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음료수, 간식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하늘 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기내식은 장거리 항공여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사로서, 이제 각 항공사의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아 항공사들은 다양한 메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비빔밥, 아시아나 항공의 쌈밥 등은 한국인에겐 여행의 피로감을 가시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내식으로서, 이들 메뉴 모두 국내외 탑승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식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머큐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항공운수업 초기, 비행기 안의 시설이 빈약하던 시절의 여행객들은 대개 중간 기착지의 공항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기내식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기체가 대형화되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지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최초의 기내식은 1919년 8월 런던-파리 정기 항공노선에서 샌드위치, 과일, 초콜릿 등을 종이 상자에 담아 승객에게 제공한 것이 효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0년대를 거치면서 항공기의 크기와 성능이 향상되고, 장거리 운항이 많아지면서 기내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따라서 기내식 관련 시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기내식이 어엿한 산업으로까지 자리 잡게 됐다. 그 이후 항공운수업이 발전하면서 노선에 따라, 클래스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형태의 코스 요리가 개발됐다.

기내식 종류와 질은 항공기 좌석 클래스별, 노선별로 다르며, 비행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1시간 이내를 비행하는 단기 노선의 경우에는 음료수만 제공되지만 이른 아침 항공편에 한해 빵이나 머핀 등의 식사대용 식품이 나오기도 한다. 6~8시간 이상 비행하는 경우에는 2번의 기내식이 제공되며, 그 이하는 1번만 나오는 것이 일반이다. 2회 이상 기내식을 먹게 되는 경우, 첫 번째 식사는 출발지 식사 시간에 따르고 두 번째 부터는 도착지 식사시간에 맞춰 음식이 제공된다.

기내식의 단가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좌석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석은 1~3만원, 비즈니스석은 5~8만원, 일등석은 8~12만원선으로 예상한다. 어린이나 건강 혹은 종교상의 이유로 특별한 메뉴가 필요한 사람은 항공 좌석 예약 시 최소 24시간 전 미리 주문을 하면 자신을 위한 특별 기내식이 제공되기도 한다.

승무원들과 조종사들도 손님들과 같은 기내식을 제공받지만, 중요한 것은 기장과 부기장은 다른 메뉴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기내식에 문제가 있어 식중독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모든 항공사들이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항이다.

구름 위의 식사, 기내식은 항공여행의 즐거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사의 가격과 서비스와 더불어 기내식의 맛과 다양성이 항공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정도로 중요해졌다. 환상적인 스카이 레스토랑에서 준비될 구름위의 만찬을 기대하며, 다음 항공여행을 준비하려고 한다.

/김형래·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충무공의 효행

효는 천연의 도리이다 ②

난중일기는 충무공(忠武公)께서 임진년(壬辰年?1592년) 정월초하루부터 순국(殉國)하시던 무술년(戊戌年?1598년) 11월 17일까지 몸소 겪으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신 것을 매일매일 자필로 기록한 글이다. 이씨 왕조는 오랜 동안 태평한 시대를 누려 와서 전쟁을 잘 모르고 있었다.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저 태평성가(太平盛歌)만을 구가하였다. 태평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대가(代價) 즉, 적이 우리 낙원(樂園)을 넘보지 못하게 힘을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의 위정자(爲政者)들은 당파 싸움에만 혈안(血眼)이 되어서 평화를 존속(存續)시킬 국방력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율곡선생의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 따위를 우습게 생각하다 급기야는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시련(試練)을 겪게 되었다. 이에 하느님은 이 민족을 후(厚)하게 생각해주시어 충무공을 미리 탄생시켜 이 시련에 대비하게 하시었다. 얼마나 감사한 하느님의 처사(처사)이신가! 만일 충무공께서 안 계셨더라면 왜적에게 당한 임진년 그 쓰라린 국치(國恥)가 얼마나 더 가혹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충무공을 다시 뵙는 듯 이 일기를 배독(拜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기 한장한 장을 받들고 읽을 때에 몇 번이나 주먹을 움켜쥐고 눈귀가 치켜 올라가는 것을 참아야 했던가!

그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도 각성하지 못하고 그 거룩하고 장렬한 충성에 쐐기를 박고 재를 끼얹어 방해하고 모함하였으며 심지어는 적(敵)과 내통하였다고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여 경옥(京獄)으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그 결과는 개미금탑 모으듯 모아 놓은 그 군함 군량(軍糧)과 그 충성스럽고 용감스러운 군졸(軍卒)을 몽땅 왜적에게 들어 내주어 희생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이 일기로 배독(拜讀)하면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다.

공(公)은 실로 무인(武人)이면서 문필(文筆)에 뛰어나 문장(文章)이든가 필적(筆跡)이 그처럼 장할 수가 없으니 문(文)으로나 무(武)로나 공(公)은 과연 성(聖)이시오 웅(雄)이시었다.

난중일기는 귀귀절절(句句節節)이 충성과 효성(孝誠)과 애민(愛民) 사상으로 점철(点綴)되어 있다. 그중 홀어머니 초계 변씨(草溪卞氏)에 대한 효성은 대단하다. 여기서는 난중일기중 효성에 관한 것만 가려 뽑아 공(公)의 지극한 효심을 본받고자 한다.

/金炯台·사천읍

난중일기 中

<임진년 1월 1일 맑음>

새벽에 동생(汝弼) 조카 봉(菶) 및 아들 회(薈)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벌써 어머니 곁을 떠나 두 번이나 이곳 남도(南道)에서 홀로 설을 새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3월 4일 맑음>

조 이립을 전송하여 보냈다. 객사(客舍) 중태청(中太聽)에 나가서 공무(公務)를 본 후에 서문의 해자 구덩이와 성을 더 쌓은 곳을 순찰(巡察) 해 보았는데 승군(僧軍)이 주어 온 것들이 부실하므로 우두머리 되는 중을 곤장을 쳤다. 아산(牙山)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는데 어머님의 편안하심을 들었다.

자녀 간식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은 아주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여야 발육이 잘 되고 교육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식욕이 왕성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고집을 부려 부모를 애타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돈만 주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불량한 음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좀 바쁘더라도 자녀에게 좋음 음식을 먹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 성격이 거친 것은 가공음식이나 인스턴트음식을 즐겨 먹은 탓도 크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 것인가로 모두 고민할 때이다. 필자는 아이들에게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잘 먹는다. 과자는 옥수수 뻥튀기를 자주 사준다. 덜 해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균형 있는 음식을 줘야 하는데 땅콩, 호도, 과일 등 집에서 틈틈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다. 아주 가끔은 통닭이나 피자, 햄버거를 사 주기도 한다. 고열량 음식이 안 좋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자주 먹는데 너무 사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사준다.

요즘 아이들은 몸집은 큰데 힘은 나약하다. 음식을 잘 먹으면서 운동을 소홀히 한 결과다. 그래서 어른들이 앓는 성인병을 아이들이 앓는 경우도 많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어려서 다진 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므로 신경을 써서 자녀건강을 챙겨야 한다.

사실 밥만 잘 먹으면 특별한 간식은 필요하지 않다. 밥에 김치, 된장, 달걀프라이, 김구이, 생선구이, 멸치볶음 등 균형 있는 음식이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떡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도 좋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부모의 정성어린 음식으로 튼튼하게 자라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토대는 부모의 자애로운 손길에 달려 있다. 자녀가 먹는 음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음식을 먹여 건강을 다지도록 하자.

/이옥출·부산시 사하구

올바른 행사 진행을 기대하며

최근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인 통사모의 열성적인 공연과 제목만큼이나 반가운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잦은 음악회로 인근 주민들에게 가을 저녁 좋은 음악 감상의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

공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공원의 소중한 존재감을 주변 주민들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며칠 전 저녁 시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들 손잡고 기대를 잔뜩 하며 들뜬 기분으로 공원에 찾아 나섰다. 무대 주변에는 벌써 자리 잡고 앉아있는 아이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구경나온 노부부 등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이름을 듣는 순간 기다리는 음악회 보다 찾아간다고 하니까 제목에서부터 더욱 좋은 기분이 앞섰다. 특히 음악회로 주변 이웃들이 함께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다고 생각하니까 주최측에 감사함을 절실히 느끼며 음악회 진행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진행자의 진행이 계속 되면서 잘못된 진행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주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주최측에 감사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특정 주최측 주민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정 아파트만의 공연을 하는 듯한 진행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행이었다.

음악이 있어도 듣고 즐기는 관객이 없으면 무대는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학교나 사회에서는 인성을 강조하며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웃과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은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모두가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자의 바른 진행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만큼이나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다. 특히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시의 시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성숙하고 발전된 축제 진행으로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을 즐거운 축제로 간직 되었으면 한다.

/김경심·사천시보명예기자

새벽시장의 삶과 희망

/이나영·마산시 오동동

별들도 고히 잠든 새벽3시에
어둠속을 뚫고 칼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새벽시장 장사 나간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파김치가 되는 몸
손수레를 끌고 눈보라를 맞아도
내사랑 당신이 있기에 활력이 넘친다

어둠속 보일듯 말듯 단골손님들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삶과 희망을 팔면
어느새 어둠은 걷이고 아침은 밝아온다

어쩌면 삶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것은
소중한 당신의 밝은 미소가 있기에
새벽을 여는 밝은 아침이 있다는 것이오

푸른꿈을 싣고 날아라~

팔포하늘에 연이 떴다.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 궁금했다. 방파제 둑길 동편 끄트머리에서 아이들 서넛이 모여 연을 날리고 있다. 나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연줄을 따라 하늘을 응시한다. "동네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어디선가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만 같다.

아직 춥지는 않지만 목 티에 두툼한 외투까지 껴입은걸 보니 제법 바닷바람이 매서운 모양이다. 얼레도 갖추지 않고 뭉텅하게 엮어 만든 나무토막에 주홍빛 나일론실을 매단 연이 제법 목섬위로 떠올라 두둥실 춤을 추고 있다. 연도 손수 만든 것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제품이다. 바람의 세기가 일정치 않은 탓인지 연줄을 당기고 펴기를 되풀이하더니 이내 몇 번 급추락하고 만다 . 한 녀석은 아예 그런 기술도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람을 불러보지만 이내 지치고 만다.

그렇게 한동안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하늘을 실컷 쳐다본다. 시리다 못해 파란 호수 빛으로 변해버린 오후의 하늘은 바다를 한껏 머금은 채 연줄을 삼키며 아이들의 꿈을 토실토실 엮어주고 있다. 바깥놀이가 귀해진 요즘 아이들에게 연날리기가 신기한 놀이이듯 유년의 고향하늘도 그랬다.

유년의 겨울은 심심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컴퓨터와 게임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저 밖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노는 일이 즐거움이자 건강을 지키는 일이었다. 자치기와 썰매타기 연날리기 땅따먹기 고구마 구워먹기 토끼몰이 쥐불놀이 딱지치기 등.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볼과 손이 트고 갈라져야 진짜 노는 맛이 나는 메뉴들이다. 그중 연날리기는 대표적인 고품격 놀이다.

두툼하게 차려입고 제방 둑에 앉아 하루 종일 연을 날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 좋았다. 아버지와 함께 대나무를 고르고 연줄을 달면서 느끼는 살가운 교감도 그렇고 연줄 끊기 싸움에서 이겼을 때의 짜릿함도 통쾌했다. 간혹 연줄이 끊겨 먼 바닷가 산꼭대기까지 연을 찾으러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옷이며 몰골이 엉망이 되어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도 많다. 가오리연 방패연등 각양각색의 연을 하늘로 날리다보면 황량한 겨울하늘도 온기를 머금고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들이 하나둘 피어났다.

다시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곧 두박질쳐 부서진 연을 손질해주고 얼레를 넘겨받아 나도 달음박질 해본다. 한번 수그러든 바람은 쉬이 거동을 않는다. 힘껏 달려가며 간신히 피워 올린 연은 목섬위로 지나가는 바람을 만난 듯 다행히 제 몸을 가눈다. 아이들의 함성도 더해진다. 다시 연은 두둥실 팔포하늘을 휘감는다. 한해의 짐들, 비록 그것이 무겁고 때론 아쉬운 존재라 해도 어쩌랴 저 연 속에 담아 훨훨 하늘높이 날려 보내자. 그렇게 한해를 갈무리하자. 새해엔 새 연에 새 희망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 끝.

/이용호·향촌동

길고도 짧은 여정

어젯밤 긴 여행을 위하여 초저녁부터 전동휠체어에 충전기를 밤새도록 꼽아두었다.

8년 전 교통사고 나가기 전날까지 밤이면 밤마다 낚싯대 하나들고 찾아가서 살 감시 볼락 망상어 잡던 곳 노란 은행잎 떨어질 때면 더욱 생각나서 해 뜨기 전에 출발하니 어판장가에 채소 파는 할매가 고생만타. 생선 파는 팔포 아줌매 수한아베 얼굴은 좋아졌다.

어묵 파는 포장마차에서 행님요 와보소 이거하나 마시소. 하면서 드링크 하나 따준다. 또 옆에서 상철이 동생 몸이 많이 좋아졌다. 참으로 인정이 아직도 넘치고 활기차게 생기 넘치는 삼천포항구다.

모두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마음 속깊이 꽉 채워준다.

몇 년간 병원생활에 의사 간호원 간병인 한주먹의 약만이 나의 구원자로 삼고 8년을 고독과 고통 속에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는 용기야말로 장애자의 보약이다. 삼천포의 두터운 정 마음에 심어두고 추억으로 가버린 엔젤호, 비너스호, 금남호 선착장을 지났다. 아 이 맛이야 삼천포항구의 아침바닷가의 절경이야

청량 주라 불리고 싶은 바닷물위에 코섬, 키타섬, 신수도섬이 내 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아침바다에 희망을 실고 통통거리는 작은 배가 높고 푸른 가을하늘에 구름 가듯이 흘러가니 섬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지키고 있고 들 물결 착각 속에 섬이 내게로 다가온다. 통발 올리던 뱃전에서 나를 보고 손흔들어 준다.

기어이 그립고 가고 파던 대방진 굴 항에 도착했다.

들물 집 앞에 멈추고 긴 독백을 뿜어내고 사천시의 명물이 도니 사천의 연륙교 바라보니 연륙교에 몸바친 학 섬, 초량 섬, 늑도 섬이 나를 오라 손짓한다. 그러자 맞은편 남해의 대방산의 주인 창선 섬이 나를 노려본다.

나는 내가 낚싯대 던져놓고 놀던 대방동의 방파제로 들어서니 새방파제가 나를 반긴다. 나는 바라만 보고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정산하고 돌아서려니

새방파제의 새로 생긴 등대는 나를 부른다. 더 가까이 오라고 한다. 서서히 차츰차츰 가다보니 방파제 끝에 대방동 어민을 지켜준다고 웅장한 모습으로 떡 버티고 있는 등대에 의지하며 나는 혼자 말한다.

마음에 어머니같이 넓고 깊은 바다를 사랑해야지 또 와야지

괴로울 때나 마음에 상처를 씻어버려야 할 때는 어머니를 꼭 다시 뵈려고 와야지 다짐한다. 되돌아오는 길가에 몇 백 년 넘은 느티나무가을 낙엽을 쓸고 있던 젊은 아줌씨가 나를 보고 반긴다.

아이고, 몇 년 만이요 소식은 종종 듣고 수한 네가 참으로 고생 많았네요.

이렇게 아저씨를 살렸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면서 나의 아내 걱정부터 해준다.

나는 참으로 세상 많이 변했구나! 나 같은 장애자는 비 장애인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허물어졌건만 사회복지정책으로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정성어린 작은 배려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한자 한자 글을 찍다보니 문득 사천시에 이렇게 이글을 올리면 팔포방파제 계단도 없애준다면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 멀리서만 보이는 하얀 등대도 가까이 볼 수 있고, 내 인생길에 추억으로 가는 2008년 겨울 길목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모든 장애자들이 휠체어로 삼천포항구를 마음껏 뒤돌아 볼 수 있으련만.....

팔포방파제의 하얀 등대가 보고파 계단 세 개만 없애주길 바라는 맘을 가져본다. /이상철·동서동

어머니의 조각보를 보며

인동초의 넝쿨로 엮은 가야금
달빛 별빛 정모아 그린
한폭의 수채화
삶의 자욱들
땀으로 얼룩진 지도

온누리 단 하나의 보화
아름다운 당신의 꽃
치자꽃!
그 향기에 취합니다.

/강맹업·동금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감사 담당관실 공보담당 ▲팩스 : (055) 831-6011 ▲ E-mail : gongbo@e4000.net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채택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천시 2009년 당초예산 4천억원 시대 진입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집중 투자

사천시는 2009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423억원(11.8%) 증가한 4021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서 당초예산 4천억원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1995년 통합시 출범 당시 1207억원, 2001년 김수영 시장 취임 첫해에는 1633억원에 불과하였던 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4천억원을 넘어서 재정규모 면에서 2배가 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중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매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액 확보를 위하여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중앙 정부와 경남도를 발로 뛴 성과이다.

시에서는 당초예산 4천억원 시대를 맞이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동결하고 사업예산 330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내년도에 투자할 주요사업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및 사회복지 기반구축 예산 967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역 SOC 사업 투자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87억원, 하천 정비 76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도시기반 확충 327억원, 도서개발사업 1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6억원 등 총 626억원을 반영하였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52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12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22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4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별주부전 테마관광인프라 구축 25억원,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7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7억원, 수산증양식 및 어민소득증대 지원 23억원,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 30억원 등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192억원으로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 10억원,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 20억원, 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 21억원, 용현 하수처리시설 51억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27억원, 마을하수도 정비 등이 63억원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은 총 46억원으로 올해 설립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적립 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한 출연금 8억원과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학교 교육 지원 38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 지원 22억원, 근로자복지관 건립비 30억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사천시의 숙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05억원이 반영되어 전체 2121억원의 사업비중 1983억원(93.5%)이 확보되고 잔여분 138억원은 2010년에 확보되어 예정 공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며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사천시의회 제13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2008 송년 콘서트

TV시청 때와는 또 다른 생생한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겨운 노래를 그리운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며, 나의 그 시절을 함께 했던 벗들과 추억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래는 아름다운 옛 시간들이 담긴 기억의 상자입니다

한국 라이브에 커다란 획을 그으며 한 세대를 풍미했던 히트곡들과 함께 눈부시게 빛났던 젊음의 날들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안내

○ 일 시 : 2008. 12.18(목) 19:30
○ 장 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 입장료 : 25,000원(예매 20,000원/문화가족 15,000원)
○ 주 최 : 사천시
○ 주 관 : 연예인협회
○ 예매처 : 해림문고(835-0960), 라데팡스안경삼천포점(835-6688),모닝글로리사천점(852-1237), 문화예술회관(831-2460)

사천시 동계전지훈련지로 급부상

남일대인조잔디축구장 전경.

사천시는 동계전지훈련 유치 중점기간을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설정해 전국 초·중·고·대학·실업팀 989개의 팀에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전행정력을 투구하고 있다.

특히 사천은 겨울철에도 눈이 오지 않은 따뜻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선수들에게 스테미너에 좋아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홍보하고 있어 인기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62회 전국아마튜어 복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됐으며, 내년 1월에는 2008~2009 여자프로농구경기 및 동계전국여고 농구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전국 체육선수들이 사천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

매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69개팀 1303명이(연인원 1만3393명) 전지훈련을 다녀간 바 있으며, 내년 1월에도 농구, 축구 등 28개팀 360명이(연인원 3800명)예정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훈련팀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전국대회 개최로 올 전지훈련팀 유치목표를 300개팀 2만2000명(연인원 21만4300명)계획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체육지원과장을 비롯한 시 체육회 사무국과 가맹단체로 구성된 전지훈련유치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북·호남에 있는 각 팀을 직접 방문해 동계전지훈련책자를 전국초·중·고, 대학팀·실업팀·체육단체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계전지 훈련기간 중에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시청, 수영장)을 무료 개방해 선수 체력 증진에 조움을 준다.

또, 공휴일에는 선수와 가족들에게 유람선관광을 무료로 제공하여 피로를 푸는 기회와 관광사천을 알려 기억에 남는 전지훈련지 인식을 심어주어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사주체육회관 준공에 이어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48억원의 사업비로 보조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설물이 준공되면 전국의 전지훈련 팀에게 보다 나은 체육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숙박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이 선수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사천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로 작은 사랑 나눕시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푼 작은사랑은 얼음 밑에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희망'이란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세대,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자, 사회복지 시설아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찾는 손길이 줄어들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더욱 외롭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이들은 더욱 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과 바다를 만들고, 작은 흙덩이가 모여 큰 산이 됩니다. 우리가 참여한 작은 정성과 따스한 손길이 사랑의 산맥을 만들고 희망의 바다를 열어 줍니다.

우리 모두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작은 정성을 모으는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는 사랑운동에 나부터 먼저 참여합시다.

♡각 기업체와 개인 모두 기부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하여 기부가 가능하며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성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업에게는 전액 손비 처리되며, 개인에게는 연말 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2008. 12. 1 ~ 2009. 1. 31

♥이웃돕기참여방법

-☎. ARS:060 - 700 - 1212
-한 통화당 2,000원씩 이웃돕기성금으로 적립됩니다.
-각 은행별 성금접수계좌 (수수료 면제)

		예금주:경상남도공동모금회	
우리은행	751-04-108497	기업은행	171-033886-01-023
국민은행	841101-01-003253	수 협	708-01-022044
제일은행	775-20-251052	우 체 국	612499-01-000973
하나은행	530-810014-62004	경남은행	579-07-0004456
외환은행	074-22-00547-6	농 협	849-01-292661
신한은행	140-003-235112		

시보건소 맞춤형건강관리사업 평가 '전국우수기관' 선정

사천시보건소(소장 유영권)가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8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전문 인력 간호사 9명을 채용해서 전문 인력별 지역담당제를 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 등을 관리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히 2008년 만성질환인 고혈압(1345명), 당뇨(537명) 등록관리 대상자들의 조절율(고혈압 91.3%, 당뇨 87%)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 자가 관리 능력이 향상된 점, 결혼이주여성 68가구에 대해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도와준 사업 결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올해의 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결과의 점수가 87점으로 전국적 대비 만족도 수치(80.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년 자료)보다 높게 나타나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로 시 보건소는 2008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과 상 사업비 500만원을 받았다.

전국 보건소 253개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천시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전국 '우수시' 확정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수도분야에서 전국 으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상수도분야에서 사천시가 전국에서 우수시로 확정돼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007년도 상수도 경영체계와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지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 노력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천시는 지난 2005년 12월 1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노후관 52.7km개량과 노후개량기 7129개를 교체하고 2357건의 누수탐사복구와 관망도 전산화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유수율을 2006년도 대비 47.1%에서 58%로 10.9%P 향상시켰다.

또한 톤당 원가도 1만154원에서 989원으로 낮추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누수방지로 인하여 37억9000만원의 자원을 절감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사천시는 노후관로 개량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노력과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 및 결과 공시, 단수시 개인휴대폰으로 단수사실 홍보 등 고객만족활동 강화와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경영혁신으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마당

각산을 오르자

각산에서 바라본 삼천포.

삼천포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행운이다.

조용한 생활공간에서 계절 따라 불어오는 남해의 육해풍이 맑은 공기를 날라다 주며 푸른 물결 출렁이는 청정의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과 섬들이 펼치는 아름다움과 먹거리가 풍성함이 행운이며 각산을 가지고 있음이 또한 행운이다.

각산 정상에 올라 가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정말 아름답다' 신은 삼천포 시민들에게만 몽땅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 느낌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 행복한 걱정이 앞선다.

산 정상에 올라 망원경을 한 바퀴 돌리면 저 멀리 하늘이 닿는 끝에는 거제도, 남해, 통영이 자리한 산들이 눈에 들며 한글 소설의 선구자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이며 별주부전의 산실인 서포면의 비토가 삼천포 대교를 붙들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고, 눈을 남쪽으로 돌리면 하얀 물결을 꽁무니에 달고 만선의 꿈을 배 가득 싣고 힘차게 달리는 바다가 있기에 먹거리가 풍성한가 보다.

우뚝 솟은 남동 발전소의 위용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지정 된 창선-삼천포 대교의 갖가지 모양들이 섬과 섬 사이를 숨바꼭질 하고 있음은 보는 이의 눈을 아름답게 한다.

뒤 돌아 눈을 돌리면 우뚝 솟은 와룡산의 웅장한 모습이 랜즈 속으로 들어오고, 각산이 도시의 한 가운데에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 높지도 않은 산이면서 우리들 가까이 있으니까 오르기가 매우 손쉬운 산이다

문화예술회관 뒤로, 한전 사택 뒤로, 용화사 골자기로, 대방 사 골자기로, 실안 골 길, 모충사 오르는 길로 따라 올라보면 한 두 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산이요 398m의 낮은 산이지만 오르는 길이 가팔라서 자주 찾지 않은 이게는 숨소리 거칠게 만들며 자주 찾는 이게도 등골에 담이 흠뻑 젖게 만드는 산이라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이 산의 삼분의 이 정도 오르면 말끔히 단장 된 약수터가 있어 오르는 이의 숨결을 한결 부드럽게 해 주며 마련 된 운동기구로 근력을 단련 하고, 땀을 식혀 정상에 올라 산 끝자락에 가보면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묻어나는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어 더더욱 애착이 간다.

특히나 산악자전거를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산이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 산이다.

모충사로 오르는 길을 따라 올라 보면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는 임도가 길을 열고 헬기장과 방송국 송신탑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 즐겨 찾아 볼만하다.

내려 올 때는 왔던 길로 올 수도 있지만 산 중턱 허리쯤에 와서 운동기구 설치 된 오솔길로 접어들면 급경사의 맛도 볼 수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한번 타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등산로를 정비 하시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 쓰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아름다운 산을 지켜 주시는 감시원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각산을 오르면서 건강을 찾자고 먼지를 털면서 권 합니다.

아직 각산을 올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어진 행운을 아직 잡지 않으셨습니까? 올라 보셔요. 참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윤식·벌리동

봉 화 대

변근철·용현면

철썩이는 물살에 귀를 여는 안점산(鞍岾山)
종종 다녀가는 해풍이 들려준 건 무엇일까?

아득한 옛적에 태어난 봉화대가
처음 불을 지펴 하얀 구름을 날리던 날
호랑이 몇 마리가 쉬어가려 들 때
무거운 책임감을 퉁겨 쏘아 날린 화살이
숨어든 적병의 간담을 서늘케 하여
이 땅을 지키던 준수한 용모 휘하
할 일이 남았다며 내다보는 깊은 두 누!
답장이 되고도 남을만한 큰 터를
잘 가꿔두면 자손대대로 본보기가 된다고
지팡이 두드리는 할아버지의 외침 속에
참고 견디면 너희들의 울타리가 된다는
할머니 목소리가 수백 리 길을 이어
손자들의 재롱으로 흡족하게 웃는 고목,
덕분에 편히 살고 있다는 새들이 날아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았으나
소중한 내용들이 안내문에 빼곡히 박혀
활기차게 돋아나 어제를 숙지하고
와룡산 정상에서 손 흔드는 모습 본다